

문화차이에 따른 상호 행동 의미의 차이가 e-Learning 에서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상규
산업기술대학원대학
e-mail : shin@aitech.ac.jp

Influence of the Meaning of the Mutual Action in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 Learners in e-Learning

Saanggyu Shin
Master Program of Information Systems Architecture, Advanced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간에 e-Learning 과 같은 학습 시스템을 제공할 때, 학습 제공자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비언어적 행동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간의 언어행동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비디오 학습이나 웹과 같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지원 시스템에서의 언어행동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언어행동의 문화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검증했다.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 e-Learning 과 같은 원거리 학습시스템을 제공할 때, 문화차이에 의해 생기는 행동의 차이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조사했다.

지금까지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분야에서 다른 문화의 언어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비디오 학습이나 웹과 같은 원격 지원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행동 문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글로벌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사내 교육이나 기술 연수 등을 e-Learning 시스템이나 화상시스템과 같은 원격 지원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적 차이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는 측의 특징적인 행동이 다른 문화의 학습자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행동에 대한 조사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대조 분석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다른 문화간에 실제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언어학적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실제 강의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연구결과와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지 한국의 대학에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행동, 언행, 표정, 제스처, 흉내,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의한 시선 처리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쪽이 느끼는 뉘앙스가 변하는 것을 “비언어적 전달”, 그것을 매개로 한 행동을 “비언

어 행동” 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대화 중에 나타나는 신체언어 (제스처)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청자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본 연구의 실험은 다양한 신체언어의 기능과 의미 속에서 대화 중에 나타나는 의도적인 제스처가 다른 문화를 가진 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실험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e-Learning 에 의한 다문화 간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나 시스템 구축 시, 연구동향에 대한 기준을 얻음으로써, e-Learning 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응용과 활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유용성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관련 연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신체언어에 대한 분류는 표현 수단에 의한 분류, 신체 부위에 따른 분류, 의도성과 비의도성에 의한 분류, 문화권에 의한 고유의 의미와 외래 의미에 의한 분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뉘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인 제스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스처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고 있다.

2.1.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제스처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서 제스처의 배경에 있는 문화적, 언어적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실제 예를 바탕으로 제스처의 의미 차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다루었다. 다문화상의

<표 1> 설문지

설문지	
성별:	나이: 전공:
Q1: 이 발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00 자 정도로 써 주십시오.	
Q2: 내용에 대한 감상을 써 주십시오.	
Q3: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표현이나 동작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의 표에 써 주십시오. 어떤 표현이나 동작이 다르다고 느꼈습니까?	
표현 혹은 동작	다르다고 생각한 이유
Q4: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나 동작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다음의 표에 써 주십시오. 어떤 표현이나 동작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표현 혹은 동작	다르다고 생각한 이유
Q5: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강사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나 동작을 한다면, 그것이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써 주십시오(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상관없음).	

제스처의 의미 차이는 일본 특유의 제스처, 영어권의 제스처, 유사한 제스처, 차이를 보이는 제스처로 분류하고 있다[1, 2].

2.2.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제스처

e-Learning 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제스처는

- (1) 청자의 행동, 감정적 반응 또는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화자 중심의 “어필 기능”
- (2)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써 “상징적 제스처”
- (3) 언어 기호 자체를 나타내는 메타 기능의 “분석 제스처”

등의 역할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스처는 문화를 중심으로 보면 사용 범위와 통용되는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역적인 특별한 기호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쓰이는 제스처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논의해야만 한다.

3. 실험

사전에 사회언어학적 연구 결과[3,4] 중에서, 국가별로 다른 사용 빈도와 의미를 가진 제스처들을 골라냈다. 그 중에서 한일 간 그 의미가 비슷한 제스처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른 제스처를 선별하여 각 제스처가 사용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 1, 2 학년 학생들에게 10 분간 한국어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의 내용과 동시에 행해지는

제스처 사이에 위화감이나 차이를 발견했거나 신경이 쓰이는 표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다르다고 느꼈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실험은 2 가지 내용으로 약 10 분간의 프레젠테이션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인 강사와 한국어가 가능한 일본인 강사에 의해 각각 이루어졌다.

- 프레젠테이션 1.
제목: 일본인이 본 한국 드라마의 11 가지 특징
강사: 일본인
- 프레젠테이션 2.
제목: 일본 생활
강사: 한국인

이 주제에 대하여 다음의 3 가지 방법으로 실험했다.

- 1) Skype 에 의한 원격지에서 프레젠테이션(일본인 강사)
- 2) 사전 녹화된 동영상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일본인 강사)
- 3) 현장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한국인 강사)

프레젠테이션 후에 설문(표 1)에서 한국 표현과 다르다고 생각한 제스처나 표현이라고 느꼈을 경우에, 그 표현이나 제스처를 적고 다르다고 느낀 이유를 적도록 했다. 각 프레젠테이션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일 간 차이를 보인다고 연구된 제스처를 이야기 도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여 청자가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특정 제스처에 위화감을 느끼는지를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표 2> 설문지 Q3에 대한 응답 (일부)

Q3: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표현이나 동작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의 표에 써 주십시오. 어떤 표현이나 동작이 다르다고 느꼈습니까?

표현 혹은 동작	다르다고 생각한 이유
6 이상을 나타낼 때 손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는 동작	일반적으로는 양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숫자를 나타낸다.
약속	양손을 서로 잡는 표현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코를 가리킨다.	손으로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킨다.
손가락의 V가 행운 나타내는 행위	한국에서는 승리를 나타낸다.

<표 3> 설문지 Q4에 대한 응답 (일부)

Q3: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표현이나 동작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의 표에 써 주십시오. 어떤 표현이나 동작이 다르다고 느꼈습니까?

표현 혹은 동작	다르다고 생각한 이유
안절부절못할 때 손을 들어올리는 행동	안절부절못할 때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와 서로 상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코를 가리키는 행동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코를 가리킨 행동
여덟 번째를 나타내는 행동	손으로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킨다.

4. 분석

우선, skype 에 의한 원격지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네트워크 환경상의 문제로, 이번 실험 결과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1. 일본인 강사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위화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한 모든 동작에 대해 한국 학생들이 한국적 표현과 다르게 느꼈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 위화감이 강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단순히 몇 %의 학생이 다른 표현이라고 느꼈는가가 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낯선 표현이나 동작이 강의 내용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이는 e-Learning 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제스처가 청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표 2, 표 3).

4.2. 한국인 강사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일본인 강사에 의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응답자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히 청자가 모국어 강사의 발표가 비모국어 강사의 발표보다 듣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나 제스처에 대한 응답이 적은 것은 모국어 강사에 대해서는 다른 제스처를 사용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발음과 내용 등에 의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된다. 응답자 중에는 모국어 출신의 강사가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제스처를 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인 강사의 강의와 비교해서 낮은 응답을 보였다.

두 실험에서 보듯이 낯선 표현이나 제스처에 대한 허용도가 모국어 출신 강사에 대해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그림을 보면서 행해진 다른 문화간의 표현의 차이에 대한 설문에서는 알 수 없는 결과로, 향후 서로 다른 표현이나 제스처가 어느 정도의 허용범위를 가질지, 청자와 화자의 위치, 상호 관계에 따라 각각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정리

이번 실험에 의해 사회언어학적 실험을 바탕으로 한 “상호 표현과 제스처의 차이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과 문화에 맞게 사용된 제스처는 강사의 신뢰와 내용의 이해를 돕지만, 선부른 사용은 강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실험을 정량적 통계에 의한 결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넓은 범위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며, 통계적 설문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세토 치히로, “제스처의 자료 빈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언어의 잠재적 영향”,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 제 12 호, 2000.
- [2] 오카와라 키요시, “교실에서의 50 개의 제스처 조사 - 문화 유산으로서의 신체 동작과 그 교육적 기능 -”, 이와테 대학 교육부 부속 교육공학 연구 제 9 호, pp.81-95, 1987.
- [3] 홍민표, “(언어행동문화의) 한일비교”, 한국문화사, 2010.
- [4] 홍민표, “일한의 언어문화의 이해”, 카지마 서점, 2007.